일자리 창출 '효자' 콜센터 유치 '가속'

광주시 6,053석 유치…올 1,100석 추가
전용건물 착공·보조금 확대 등 총력전

■광주 콜센터 현황

	공기업	보험	방송	학원	정보	가스	금융	전자	채권	통신	계
좌석수	111	2,051	315	20	45	22	220	350	700	2,219	6,053
업체수	2	10	1	1	1	1	2	1	2	6	27

광주시가 집중 유치하고 있는 콜센터(Call Center)가 청년 실업해소와 함께 여성 일자리 창출의 '효자'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천1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 콜센터 지원 보조금을 늘리고 콜센터 전용 건물을 짓는 등 콜센터 유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콜센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현재 27개사 6천53석을 유치, 6천53명의 인력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콜센터 근무 인력 급여, 시설설치비, 건물임차료 등 연간 1천950억원의 직·간접 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는 광주여대 등 지역 대학 내 관련 학과 개설 등 전문인력 양성과 국내 유일의 콜센터 연구기관(전남대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콜센터 유치사업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올해 은행권, 공기업을 상대로 콜센터 유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 6개사 유치를 통해 1천100개 일자리를 창출키로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서구 상무지구에 지상 15층 규모의 콜센터 전용 건물을 착공하는 등 콜센터 유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여기에다 시는 올해부터 각각 2억원씩이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폐지, 콜센터 입주 기업이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신규 채용 인원이 20명을 넘는 콜센터의 경우 초과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고용보조금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1개월 간 지급하고, 시설보조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시설·장비 설치비의 30%까지 지원키로 했다.

시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노동집약적인 콜센터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왔지만 부산시나 대구시 등 콜센터 유치 경쟁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 규모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

이밖에 시는 콜센터 운영요원을 기업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적 인프라 육성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콜센터 유치는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최적의 콜센터 유치 환경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기맞이' 출산 교육 광주시 남구보건소는 12일 교육실에서 2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생아에게 보여줄 모빌(mobile)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남구보건소는 매달 둘째주 화요일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기자기 아기맞이' 출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구 주월 1동, 북구 오치2동 이어 동구 계림1·2동, 산수1동

'희망스타트' 시범지역 됐다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광주시 남구 주월 1동과 북구 오치2동에 이어 동구 계림1·2동과 산수1동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희망스타트'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올해 정부로부터 각 3억원씩, 모두 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희망스타트사업은 지역사회가 보건·복지·교육분야의 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복지사업이다.

광주시와 동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동구 계림1·2동과 산수1동을 희망스타트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희망스타트 시범지역은 지난해 지정된 남구 주월 1동과 북구 오치2동을 포함 3곳으로 늘어났다.

동구는 저소득층 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희망스타트센터'를 계림1동 주민센터 2층에 개설키로 했다. 이 사무소에는 사회복지·간호직 등 필수전담공무원 3명과 보육, 보건, 가족복지 등 사업수행보조인력 3명 등 6명의 전담팀이 근무하게 된다.

동구는 아울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범지역 내 288명의 통합서비스 대상자들을 상대로 욕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방과 후 저소득층 자녀의 방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전담공무원 교육과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 및 언어 교육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방문 교육서비스, 학력부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계림동 및 산수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동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내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남구 주월 1동과 북구 오치 2동에서는 609명의 아동이 건강검진, 치과진료, 특기적성교육, 방과 후 학습지도, 장애아동 멘토링, 테마여행 및 문화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시청 앞 광장도 녹지로

1만 8천800여㎡… 4월부터 조성 공사

광주시 청사 맞은 편의 미관광장에 이어 시청 앞 광장도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10~15억원을 들여 청사 앞 광장 1만8천800여㎡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4월 착공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3가지 디자인 방안이 제시된 상태다.

시는 삭막한 점토벽돌을 걷어내고 나무와 잔디, 인공 물길 등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인데 제1안은 무등산을, 제2안은 전통 조각보를, 제3안은 빛의 파동을 각각 모티브로 삼았다.

시는 이들 구상안의 경제성, 상징성, 환경성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선정키로 했다.

녹지공간에는 시 양묘장에서 키운 대형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옮겨 심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광장은 나무가 부족할 뿐아니라 점토벽돌로 조성돼 한 여름 복사열 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며 "녹지공간이 조성되면 역시 연말까지 완료되는 청사 맞은편 미관광장 생태숲과 연결돼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

다문화패밀리센터 유치 본격 활동

광주시, 1만명 서명 운동·총선 공약 채택 요구

광주시가 국립 다문화패밀리센터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13일 다문화패밀리센터 건립 제2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센터 유치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광주지역 후보들에게 패밀리센터 유치계획을 공약에 포함되도록 요구하기로 하고 공식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는 25일부터 29일 사이 청와대와 관련 부처 등을 방문,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여성계와 학계, 시민단체, 다문화 관련 전문가 등 15명으로 건립 추진위를 구성하고 김필식 동신대 이사장과 이상옥 다문화전문가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에 선임했다.

시는 국비 1천60억원을 들여 2만6000여㎡의 규모의 다문화 패밀리센터를 2012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국제 다문화패밀리센터가 광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위와 함께 중앙정부에 광주 건립 유치의 타당성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문화 CEO' 등 8개 선정

올해 광주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차세대 여성문화 최고경영자(CEO) 만들기 등 8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지정공모의 경우 ▲성 인지 생활예절 지도자 양성교육(예지원) ▲성평등 역사로 보는 '그녀들의 삶'(광주여성민우회) 등 3개 분야에서 4개 사업이 채택됐다.

시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평가·분석하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모니터제'를 통해 발전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담

●당직변호사(14일)	
천형욱	223-4200
●법무사회 법률상담(14일)	
최재혁	239-1809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기동수사대 (광주)	229-0118
(전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

외국인 응급 안내전화 통역 언어 6개로 몽골·베트남어 등 추가

광주시의 외국인 응급 안내전화(119)의 통역 가능 언어가 6가지로 크게 다양해졌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외국인을 위한 119 통역 서비스인 'Help me 119 서비스'를 통역해주는 언어를 기존 영어와 일본어 외에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싱가포르어 등으로 확대했다.

시는 최근 시내 사회복지관 등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8명을 자원봉사자로 추가 선발, 모두 14명에게 외국인 응급 안내전화의 통역을 맡겼다. 이들 언어외 외국어는 외국어 통역서비스인 한국BBB운동(1588-5644)과 연계해 3자 통역시스템을 운영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광주에 사는 외국인은 1만784명이지만 이들의 119 신고 건수는 0.1%인 11명에 불과했다"며 "외국인들도 언어의 장벽 앞에서 주저하지 말고 119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